

일본의 차이나타운 연구*

-고베 난징마치(南京町)를 중심으로-

이 정 희**

목차

- I. 서론
- II. 고베화교의 역사
- III. 난징마치의 조성과 구정축제(春節祭)
- IV. 난징마치를 지탱하는 고베화교 관련 단체
- V. 결론

I. 서론

본고는 일본의 차이나타운인 고베 난징마치(南京町)¹⁾의 조성과정 검토를 통해 인천차이나타운 조성에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고베의 난징마치는 요코하마(横浜)의 중화가(中華街), 나가사키(長崎)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9-362-A00002).

**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교수

1) '난징마치'는 고베의 일본인들이 중국인의 거주지란 의미로 불렀던 명칭이다. 화교들은 난징마치를 '唐人街'로 불렀다고 한다.(王維, 『素顔の中華街』, 洋泉社, 2003, 46쪽)

의 신치중화가(新地中華街)와 함께 일본의 3대 차이나타운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고베의 난징마치는 요코하마의 중화가처럼 연간 약3천만 명이 찾는 세계적인 차이나타운은 아니지만, 일본에서는 중화가 다음의 규모와 국내의 관광객에게 인지도가 꽤 높은 차이나타운이다.

일본의 3대 차이나타운이 본격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한 것은 중화가가 1950년대, 난징마치와 신치중화가는 각각 1980년대부터다. 요코하마의 중화가를 제외한 난징마치와 신치중화가는 일본의 패전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 차이나타운의 면모를 거의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황폐화되어 있었는데, 각각의 시기에 새롭게 개발된 차이나타운이라 할 수 있다.

본고가 고베의 난징마치를 사례로 들어 일본의 차이나타운의 형성과 조성 과정을 살펴보려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인천차이나타운 조성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인천차이나타운 조성은 전체적으로 문화화된 경관이나 문화 콘텐츠가 부족하고 중화요리점 위주의 상업화에 치우친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있고²⁾, 이와 같은 지나친 상업화된 경관은 결국 차이나타운의 최대의 매력인 중국적인 이국정취를 느끼고 체험할 수 없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차이나타운으로서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다.

인천차이나타운이 조성되기 시작한 시기는 2000년대로 고베 난징마치보다 약 20년 뒤이지만 시기적으로 큰 차는 없다. 또한 인천과 고베는 근대시기 개항장이라는 공통점과 화교의 이주 시기가 19세기 말로 비슷하다. 이런 점에서 고베 난징마치가 어떤 개념으로 차이나타운이 조성되었는지, 난징마치 번영회와 행정 당국은 조성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양자는 어떤 관계 속에서 조성 사업을 추진했는지, 고베의 화교 단체 및 연구기관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인천차이나타운

2) 유예지, 『인천차이나타운 경관의 상업화:주체별 역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12.

조성에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차이나타운은 화교의 역사와 문화(축제, 음식, 예능)가 응축된 곳이다. 비즈니스와 문화의 주체자인 화교가 외부인에게 정보를 잘 공개하지 않는 폐쇄성으로 인해 화교가 아닌 외부인이 차이나타운을 분석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화교와 일본인이 아닌 한국인이 일본의 차이나타운을 분석하기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런 사정으로 국내에서 일본의 차이나타운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 유종하(2007)가 한중수교 15주년 기념으로 일본의 3대 차이나타운을 3회에 걸쳐 간단하게 소개한 것과 이동현(2009)도 3대 차이나타운의 소개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이옥련(2008, 2013)은 근대 인천화교 사회의 형성 및 경제활동의 비교 대상으로 근대 요코하마 화교사회의 형성에 대해 검토했지만, 요코하마 차이나타운을 논의한 것은 아니었다.

일본에서도 일본의 차이나타운에 관한 안내서는 많은 반면³⁾, 학술적 연구 성과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편이다. 그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연구는 일본의 3대 차이나타운을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검토한 王維(2001, 2003)와 張玉玲(2008)의 연구 성과다. 王維는 화교 주최의 각종 연중행사와 제사 등을 참여 조사하고, 다수의 화교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차이나타운의 운영 원리와 화교사회 전체의 시스템을 면밀히 검토했다. 張玉玲은 화교 문화를 중화학교, 사자춤, 관제묘(關帝廟), 화교역사박물관 등을 사례로 소개하고 차이나타운을 다민족공생사회의 하나의 좋은 모델로 위치 지워 검토했다.

그러나 두 연구자의 연구 성과는 최근의 난징마치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한 한계가 있다. 필자는 두 연구자의 기존 연구 성과를 충분히 참조하면

3) 그와 같은 연구 성과로는 讀賣新聞社橫濱支局(1998), 陳(2009), 林·小田(2009), 橫濱商科大學編(2012) 등이 있다.

서 이들이 사용하지 않았던 고베화교 및 화교 연구 단체의 최근의 소식지와 전단지 그리고 고베화교 관련 시설 견학 등을 통해 상기의 고베 난징마치 조성에 관한 연구과제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본고는 먼저 140년에 걸친 고베 화교의 역사를 개관한 후, 난징마치의 형성 및 조성 과정과 난징마치의 대표적인 축제인 구정축제(春節祭)에 대해 살펴보고, 난징마치를 지탱하는 고베의 각종 화교 관련 연구단체와 화교박물관의 활동을 소개한 후, 마지막에 난징마치 조성 과정이 인천차이 나타난 조성에 시사하는 점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순서로 전개한다.

Ⅱ. 고베화교의 역사

본 장에서는 고베 난징마치의 형성과 조성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고베화교 140년의 역사를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3기로 나눠 상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이처럼 3기로 나눈 것은 고베화교 경제활동의 성쇠와 전쟁과 같은 정치적 사건을 기준으로 했다는 점을 밝혀둔다.

1. 제1기(1880년대-1900년대)

고베에 화교가 처음으로 이주한 것은 고베가 개항된 1868년으로 인천보다 약 15년 앞선다. 나가사키와 요코하마는 이보다 빠른 1859년에 개항되면서 두 도시에 중국인의 이주가 본격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고베 화교의 정착은 두 도시에 비해 9년 뒤가 된다.⁴⁾ 고베화교의 이주 및 정착은 이처럼 두 도시에 비해 조금 늦었지만 고베화교의 인구와 경제력은 두 도

4) 단, 나가사키에는 16세기 후반부터 무역을 목적으로 한 중국인이 거주하기 시작, 중국인 집단거주지인 ‘당인야시키’가 형성되어 있었고, 중국식 사찰인 唐寺, 관제묘(關帝廟) 등이 설치되어 독자적인 중국식 문화행사를 거행하고 있었다.

시의 화교를 곧 능가하게 된다.

1880년 고베가 포함된 효고현(兵庫縣)의 화교 인구는 516명에 불과했지만, 1930년은 8,219명으로 같은 해 나가사키현(長崎縣) 2,324명, 가나가와현(神奈川縣, 요코하마) 4,955명, 오사카(大阪) 4,318명, 도쿄(東京) 7,547명을 상회, 일본화교 전체 인구의 21%를 차지했다.⁵⁾ 이러한 추세는 일본의 패전 이후에도 이어졌는데, 1984년과 1992년의 경우 효고현의 화교 인구는 각각 6,504명(전체의 29%)과 6,780명(전체의 26%)으로 일본의 도시 가운데서는 가장 많았다.⁶⁾

이주 초기 고베화교의 경제활동은 무역상이 중심이었다. 이들 화상은 고베와 중국 및 동남아시아 간의 중계무역을 주로 담당했다. 일본인 무역상은 이 시기에 중국과 동남아시아에 상업네트워크를 구축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화상은 일본산 면사, 성냥, 수산물, 양산 등을 거의 독점적으로 수출하고 면화, 설탕, 쌀 등을 수입하여 큰 부를 축적했다. 화상의 출신지는 廣東省이 가장 많았으며 浙江省과 江蘇省 출신의 이른바 三江系와 福建省 출신의 福建系가 그 뒤를 이었다.⁷⁾

화교는 무역업 이외에 서양인의 일용적인 서비스와 물품을 제공하는 분야에도 진출했다. 대표적인 것이 양복점, 이발관, 제화, 인쇄 업종이다. 그리고 화교 경영의 중화요리점도 이 시기에 설립되었다. 1904년 말 현재 고베화교 2,151명의 직업별 분포는 상인 145명(무역상80, 직물상41, 잡화상

-
- 5) 過放, 『在日本華僑のアイデンティティの變容: 華僑の多元的共生』, 東信堂, 1999b, 54쪽.
 6) 過放, 앞의 책, 1999b, 65쪽. 여기서 화교 인구는 특별영주권을 받은 이른바 ‘舊華僑’(혹은 老華僑라 함)만을 포함한 것이다. 1984년과 1992년의 재일중국인 총인구 가운데 ‘舊華僑’는 전체의 32.9%와 13.5%에 불과하고 그 나머지는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중국 대륙에서 일본에 이주한 ‘新華僑’가 차지했다. 이들 舊華僑의 법적 지위는 기본적으로 재일한국인과 같으며 지방참정권이 없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각종 복지 혜택에서 일본인에 비해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
 7) 籠谷直人, 『アジア國際通商秩序と近代日本』, 名古屋大學出版會, 2000, 65-71쪽.

16, 약종상5, 과자상2, 전당포1명), 양복점 89명, 이발업 26명, 음식점 13명이며, 직공 및 노동자가 662명이고, 그 이외는 피부양가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⁸⁾

화교의 인구증가와 경제발전에 따라 화교사회를 규율하고 상호협력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단체가 조직된 것도 이 시기다. 福建系가 1870년 상인간의 분쟁 조정을 목적으로 八閩公所, 광동계 상인이 1876년 廣業公所를 각각 조직하고 그 회관을 1903년 건설했다. 三江系의 三江公所 설립 연대는 분명하지 않으나 1891년 이전에 설립된 것은 확인되어 있다.⁹⁾ 1870년에는 고베에서 사망한 화교를 위한 묘지인 中華義莊이 조성되었는데 초기의 관리는 이들 公所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1878년 설립된 청국 영사관의 권고에 따라 각 公所가 협력하여 1891년 조직된 것이 神阪中華會館으로 이들의 활동 거점인 회관이 준공된 것은 1893년이였다. 神阪中華會館은 각 공소의 협력체제의 상징적인 조직으로 中華義莊의 관리, 각종 제사와 문화행사의 주최 등 화교사회를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청국 정부가 국내와 화교의 상공회의소 설립을 추진하는 정책에 고베화교도 동참, 神戶中華總商會가 1909년 5월에 발족되었다.¹⁰⁾ 神戶中華總商會는 정부의 공인기관으로서 화상 간의 상사중재를 비롯하여 주로 정치적, 경제적 사안을 처리했다. 그리고 화교 자제의 교육을 위한 神戶華僑同文學校가 1900년에 개교했다. 이처럼 제1기는 화상의 활발한 경제활동과 각종 사회단체와 교육기관이 설립된, 고베화교의 형성기로 볼 수 있다.

8) 中華會館編, 『落地生根:神戶華僑と神阪中華會館の百年<増訂版>』, 研文出版, 2013, 117쪽.

9) 内田直作, 『日本華僑社會の研究』, 同文館, 1949, 157-160쪽.

10) 中華會館編, 앞의 책, 2013, 127쪽.

2. 제2기(1910년대-1940년대 전반)

1910년대부터 1940년대 전반까지의 제2기는 고베화교를 둘러싼 정치경제적 환경에 따라 다시 1910년대-1920년대의 전반기와 1930년대부터 1940년대 전반까지의 후반기로 나눌 수 있다.

전반기의 고베화교 인구는 1910년 1,700명, 1920년 3,271명, 그리고 1930년은 6,780명으로 급속히 증가했다. 그러나 제1기에 무역을 통해 거부를 축적한 고베화상은 전반기 무렵부터 점차 일본인 무역상에 그 지위를 내어주고 만다. 하지만 이들 고베화교 무역상이 고베항의 동남아시아 수출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20-30년대에 줄곧 3-4할에 달하여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¹¹⁾

전반기에 특히 주목할 점은 화교의 직업이 제1기에 비해 보다 다양해지고 그 인원도 많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만주사변 직전 고베화교 무역상은 98명, 요식업은 207명(주인15명, 종업원192명), 직물상은 53명(주인10명, 행상43명), 이발업은 358명(주인39명, 종업원319명), 폐인트직공은 141명, 양복점은 354명(주인34명, 직공320명)이었다.¹²⁾

이와 같은 직업의 다양화는 각종 同業組合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요리업조합인 神戸華僑華廚聯義會는 1922년, 양복점조합인 神阪華僑洋服商組合은 1922년, 이발업조합인 神戸華僑理髮業聯合會는 1925년, 도장업조합인 神戸華僑塗業同業公會는 1925년, 포목상조합인 兵庫縣華商綢業公會는 1935년에 각각 설립되었다.¹³⁾

한편, 일본 정부가 1899년 칙령 제352호를 공포하여 기능을 보유하지 않은 중국인 단순 육체노동자, 이른바 쿨리의 일본 이주를 엄격히 제한하여 일본의 화교노동자 인구는 극소수에 불과했다.¹⁴⁾ 이것은 일본화교와

11) 中華會館編, 앞의 책, 2013, 124쪽.

12) 中華會館編, 앞의 책, 2013, 183쪽.

13) 内田, 앞의 책, 1949, 319-320쪽.

조선화교의 가장 큰 차이의 하나로 조선화교가 일본화교의 인구를 훨씬 상회한 최대의 요인이었다.¹⁵⁾

이어 후반기는 중일간의 마찰이 격화되어 결국 만주사변, 중일전쟁의 발발을 초래, 화교를 정치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했다. 먼저 1931년 9월 발생한 만주사변으로 인해 귀국하는 화교가 급증, 1931년 말의 고베화교 인구는 3,968명으로 1930년 말보다 무려 41%나 감소했다. 그 후 고베로 되돌아온 화교 증가로 인구는 1936년에 4,744명으로 회복하지만, 1937년 7월 발발한 중일전쟁으로 그해 12월의 인구는 2,512명으로 급감했다. 그러나 일본군 점령지역에 친일괴뢰정부가 수립되면서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서 1939년에는 4,420명으로 회복되었다.¹⁶⁾ 그러나 고베화교의 인구가 최고로 많았던 1930년에 비하면 약 6할의 수준에 불과했다.

또한 중일전쟁과 제2차세계대전으로 고베화교 경제의 중심이었던 무역상의 수출입무역이 위축되고, 일본 정부의 통제경제 실시로 화교에 대한 각종 경제활동 제약 조치가 이뤄져 고베화교의 경제는 급격히 쇠퇴의 길을 걷게 된다. 일본 당국의 화교 탄압은 중일전쟁 후 더욱 심해졌는데, 1937년 9월 고베의 국민당 관계자 12명을 검거한 것을 시작으로 1938년 5월까지 총 44명의 고베화교를 검거했다.

그리고 1944년 8월에는 福建省 출신의 직물행상인 12명이 경찰에 연행되어 이 가운데 6명이 혹독한 고문을 받거나 살해되었다. 일제 당국은 1939년 1월에 廣東, 福建, 三江의 각 公所를 해산시키고 神阪中華總商會에

14) 동 칙령 제352호의 성립과 시행에 대해서는 許(1990a·1990b)를 참조 바람.

15) 일본화교와 조선화교의 또 다른 큰 차이는 출신지가 전자가 廣東省, 福建省, 浙江省 및 江蘇省이 중심인데 비해 후자는 山東省이라는 점, 화교경제의 중심이 전자가 무역상인데 비해 후자는 직물상이라는 점, 토지소유권은 전자에게는 부여되지 않았지만 후자에게는 부여되었다는 점 등이다.(李正熙, 『朝鮮華僑と近代東アジア』,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12, 524쪽)

16) 中華會館編, 앞의 책, 2013, 413쪽.

통합시켰다. 여기에도 1945년 6월 연합국에 의한 고베대공습으로 화교의 상점은 물론이고 神阪中華會館과 각종 화교 관련 시설이 불탔으며, 화교 180명이 사망했다.¹⁷⁾ 이로 인해 고베화교가 약 70년간 쌓아온 사회경제적 기반은 거의 무너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3. 제3기(1940년대 후반-현재)

다음은 제3기인 1945년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다.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일제의 신민이었던 대만인이 중국 국적을 회복했다는 점과, 1972년에 중일간의 국교정상화로 중국 본토에서 일본으로 중국인의 이주가 대량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일본 거주 대만인이 중국 국적을 회복하자 이들은 대륙 출신 舊華僑와 구별하기 위해 ‘新華僑’로 불리었다.¹⁸⁾ 1948년7월 말 현재 일본화교의 총수는 3만 5,379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대륙출신 舊華僑가 2만431명, 대만계 新華僑가 1만4,958명으로 전체 화교의 42%를 차지했다. 고베화교만을 놓고 보면, 대만계 新華僑는 전체 화교 인구의 46%를 차지했다.¹⁹⁾ 이처럼 대만계 新華僑의 생성은 한국화교 사회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양상이라 할 수 있다.

당시 대만의 국민당과 중국의 공산당은 이념을 달리하여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었던 관계로 그 모순은 늘 일본화교 내부에 잠재해 있었고 어떤 때는 격렬하게 표출되기도 했다. 고베의 대륙출신 舊華僑의 神戶華僑總會

17) 中華會館編, 앞의 책, 2013, 190-222쪽. 특히 福建省 福清縣 출신 직물 행상에 대한 단 압에 대해서는 고베화교인 林同春(1997), 林珠榮(2011)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18) 1972년 중일국교 정상화 이후 중국 본토에서 일본으로 이주한 화교도 일반적으로 ‘新華僑’로 부르기 때문에 두 종류의 ‘新華僑’가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일본의 패전 직후 화교가 된 대만인을 대만계 ‘新華僑’, 후자를 대륙계 ‘新華僑’로 나눠 표기한다.

19) 中華會館編, 앞의 책, 2013, 240-241쪽.

와 대만계 新華僑의 臺灣省民會는 1946년 11월 합병하여 새롭게 神戶華僑總會를 조직했다. 이 단체는 화교의 배급, 경제활동에 대해 점령 당국과 교섭을 주로 담당했으며 중화민국(대만)의 神阪僑務分處(영사관)의 하부 조직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²⁰⁾

한편, 1952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을 지지하는 대만계 新華僑들이 神戶華僑總會에서 이탈하고, 1957년에는 친중국계 이사들이 神戶華僑聯誼會를 조직하여 분리 독립하는 진통을 겪었으나, 두 단체는 1976년에 다시 통합됐다. 그러나 같은 해 친대만계가 神戶華僑總會에서 분리하여 留日神戶華僑總會를 설립, 현재는 두 단체가 각각 활동하고 있는 상태다.²¹⁾

고베화교사회는 이처럼 두 단체로 양분되어 있기는 하지만 요코하마에 비해 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는 않다. 요코하마화교사회의 경우, 침예한 이념대립으로 1952년 친중국계가 横浜中華學校에서 이탈하여 새롭게 横浜山中華學校를 설립, 현재까지 서로 다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²²⁾

神戶中華同文學校는 중국 대륙의 간체자 교육과 사회 및 역사 교육을 실시하는 친중국적 성향의 학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베에는 화교학교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구화교든 대만계 新華僑든 거의 모두가 이 학교의 동창 혹은 동문 관계에 있어 양자 간의 이념적 대립 및 마찰을 완화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이 요코하마화교사회에 비해 고베화교사회의 양자 간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이유로 꼽는 사람이 많다.

한편, 고베화교의 경제는 중일전쟁 기간 중 쇠퇴했지만 패전 이후 서서히 회복했다. 화교의 주요한 직종은 전전에 많았던 무역상, 이발업, 요식업에다 새롭게 파친코, 부동산업 등이 추가되었다. 1952년 경 일본화교의 총

20) 山田信夫編, 『日本華僑と文化摩擦』, 巖南堂書店, 1983, 141-143쪽.

21) 可兒弘明·斯波義信·遊仲勳編, 『華僑·華人事典』, 弘文堂, 2002, 260쪽.

22) 可兒弘明·斯波義信·遊仲勳編, 앞의 책, 2002, 781쪽. 이 사건을 '横浜華僑學校事件'이라 부른다.

자본 가운데 약 6할은 고베화교가 차지할 정도로 고베화교의 경제력은 여전히 타 지역화교를 압도하고 있었다.²³⁾

1972년 중일국교정상화 이후 중국 대륙으로부터 일본에 이주하는 중국인이 급속히 증가한 것은 고베화교사회뿐 아니라 일본화교 사회 전체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²⁴⁾ 2007년 말의 통계로 재일중국인 총수는 60만6,889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재일한국인 인구를 누르고 재일 외국인 인구에서 1위를 차지했다. 고베는 1960년대까지 재일중국인(화교)가 가장 많은 도시였지만, 중국인이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으로 많이 이주한 관계로 현재는 7위로 전락했다.²⁵⁾

대륙계 新華僑의 증가와 일본경제의 구조변화로 고베화교의 직업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1990년대 고베화교 취업자 4,145명의 직업별 분포는 사무업 1,180명(28%), 서비스업 692명(17%), 기능직 411명(10%), 관리직 390명(9%), 기술직 205명(5%), 의료관계 165명(4%)의 순으로 많았다.²⁶⁾ 전전의 주요한 화교 직종이었던 요식업, 이발업, 도장업 등은 거의 사라지고 서비스업과 관리 그리고 의사 등의 의료 관계 종사자가 많이 증가했다.

Ⅲ. 난징마치의 구성과 구정축제(春節祭)

1. 난징마치의 형성

난징마치의 형성은 다음과 같다. 청국과 일본은 1871년 대등한 중일수호

23) 過放, 『神戸華僑・華人に関する研究動向』, 飯島渉編, 『華僑・華人史研究の現在』, 汲古書院, 1999a, 52쪽.

24) 중국 대륙에서 이주한 新華僑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편인데, 譚·劉(2008)와 吉田(2009)의 연구는 일본 사회 내 新華僑의 실정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25) 安井三吉, 『神戸華僑歴史博物館と孫文書『天下爲公』碑』, 『海港都市研究』5, 2010, 99쪽.

26) 中華會館編, 앞의 책, 2013, 267쪽.

조규를 체결, 인천과 같은 청국전관조계는 일본에 설치되지 않았다. 그 대신 개항 초기 개항지에는 외국인거류지가 설치되어 외국인은 이 구역에서 거주하게 된다. 그러나 외국인 특히 화교의 인구 증가와 외국인 경제의 발전으로 외국인거류지가 협소해지자, 거류지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요코하마는 거류지를 확대하여 이 문제에 대처했지만, 고베는 현재의 中央區의 서쪽 지역을 雜居地(현재의 난징마치)로 지정하여 외국인과 일본인이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배경으로 요코하마는 화교가 거류지 일각에 집중 거주하여 현재의 중화가로 발전한 반면, 고베는 잡거지인 난징마치에 화교가 집단거주하면서 상업 활동을 전개, 이곳에 차이나타운이 형성되었다.²⁷⁾

고베에 1874-77년 거주지가 파악된 화교 43명의 주거는 외국인거류지 1명 이외의 42명은 모두 난징마치였다. 그리고 1910년 고베에는 화상의 점포 154개소가 있었는데, 난징마치 130개, 그 이외의 지역 24개로 전체의 8할 이상이 난징마치에 집중되어 있었다.²⁸⁾

난징마치는 1920년대까지 화교인구의 증가와 경제 번영으로 활기가 넘쳤다. 하지만 1930년대 들어 중일관계가 악화되자 난징마치는 그 영향을 받았다. 1935년 경 난징마치에는 약 70개의 점포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화교 점포가 23개로 전체의 약 33%를 차지했다. 1910년에 비해 점포수가 급격히 감소한 것과 일본인 점포가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점포 23개소의 내역은 중화요리점 9개소, 식육점 4개소, 잡화점 7개소, 한방약점 3개소였다. 화교 경영의 중화요리점은 第一樓, 老祥記, 博愛, 東興樓, 大東樓 등으로 이 가운데 老祥記는 난징마치에서 지금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²⁹⁾

27) 山下清海編編, 『華人社會がわかる本中國から世界へ広がるネットワークの歴史, 社會, 文化』, 明石書店, 2005, 115쪽.

28) 中華會館編, 앞의 책, 2013, 53-56쪽.

중일전쟁 발발 후 고베화교가 본국으로 대량 귀국한 후, 일본인이 난징마치의 점포를 더욱 많이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1945년6월 고베대공습으로 난징마치는 전소되어 중국적 경관은 거의 사라졌다. 화교는 전후 혼란기에 난징마치에 노점을 설치하여 미군으로부터 받은 배급 물자 등을 판매하거나 중화요리를 할 줄 아는 화교는 만두, 라면 등을 판매했다. 화교 무역상은 홍콩과 대만의 무역상과 연락하여 설탕, 의약품을 밀수했다. 난징마치는 1950-60년대는 외국인 선원을 상대로 한 술집이 급증하고, 베트남 전쟁이 시작된 후에는 베트남에서 귀향한 미군의 난투가 끊이지 않아 일반 시민은 난징마치를 경원했다.³⁰⁾

1965년 난징마치의 시장조합에 가맹된 점포는 65개소로 그 업종은 요리점 8개소, 해산물을 포함한 식료품점 12개소, 식육점 6개소, 나머지는 생선, 과일가게였다. 화교로 보이는 점주는 23명으로 나머지는 전부 일본인이었다. 일본인 경영의 점포는 거의가 중국물산과 무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1981년에는 화교경영의 중화요리점은 6개소, 정육점 3개소, 잡화 및 식품점이 9개소로 1960년대보다 더욱 줄어들었다.³¹⁾ 화교의 주요한 거주지는 이전의 난징마치에서 약간 떨어진 곳으로 이주가 이뤄져 1970년대 초반에는 차이나타운으로서의 면모는 거의 상실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2. 난징마치의 조성

난징마치 지역민이 동 지역을 활성화하려는 시도는 1960년대부터 있었지만 지역의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중단되었다. 이런 가운데 1972년

29) 神戸新聞社編, 『素顔の華僑: 逆境に耐える力』, 人文書院, 1987, 35·41쪽. 老祥記는 1915년 浙江省 출신의 曹松琪에 의해 난징마치에 설립되었다. 老祥記는 '돼지만두'로 유명하다. 老祥記는 이 사업의 성공을 발판으로 2004년 난징마치에 曹家包子館, 2006년에 중국 잡화점인 月龍을 개업했다.

30) 神戸新聞社編, 앞의 책, 1987, 34쪽.

31) 神戸新聞社編, 앞의 책, 1987, 35쪽.

중일국교정상화는 난징마치 조성에 좋은 계기가 됐다. 인천차이나타운 조성이 1992년 한일국교정상화가 계기가 된 것과 비슷하다.

고베시가 양국의 국교정상화 직후 ‘도시경관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난징마치를 중국적인 경관이 물씬 풍기는 마을만들기를 지원하는 방침을 정했다. 고베시는 동 지역의 구획정리(주민들로부터 토지징수)의 대가로 난징마치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시의 지원을 받으려면 법인조직이 필요함에 따라 난징마치에서 영업하고 있던 약 60명의 화교 및 일본인 상점주가 1977년에 설립한 것이 南京町商店街振興組合이다.³²⁾

동 조합은 1977년 설립 이래 현재까지 난징마치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2000년11월 현재 조합원은 94명, 가맹점 103개소, 무점포 2개소, 찬조회원 8명이었다. 동 조합 가맹점 가운데 6할은 일본인 업주, 4할은 화교 업주이며, 그리고 화교 조합원의 약 반 수는 화교 2세와 3세였다.³³⁾ 동 조합은 최근의 조합원 상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2000년과 비교해 큰 변화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일본인 조합원과 화교 조합원의 관계는 매우 원만하며 충돌하는 경우는 잘 없다고 한다. 동 조합은 기관지로 『南京町通信』을 월 1회 발행하는데, 특집기사, 난징마치뉴스, 신문보도, 동 조합의 의사록, 수지결산 등의 내용으로 20쪽 분량이다.

한편, 인천차이나타운에 동 조합과 같은 ‘인천차이나타운번영연합회’가 화교 상인 27명으로 설립된 것은 2004년 6월이며, 동 차이나타운의 한국인 상인은 독자적으로 그해 7월 ‘북성동번영회’를 설립했는데³⁴⁾, 현재는 두 번영회가 통합되어 ‘차이나타운 상가 번영회’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들 번

32) 王維, 『日本華僑における傳統の再編とエスニシティ：祭祀と藝能を中心に』, 風響社, 2001, 168-169쪽.

33) 可兒弘明·斯波義信·遊仲勳編(2002), 266-267·586쪽.

34) 이창호, 『한국 화교(華僑)의 사회적 공간과 장소: 인천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박사학위논문, 2007, 274-276쪽.

영회는 이창호(2007)의 연구를 토대로 南京町商店街振興組合과 비교해 볼 때 화교와 한국인 회원 간의 관계는 원만하다고 할 수 없을 것 같다.

동 조합은 난징마치 조성에 자발적이면서도 주체적으로 참가했다. 동 조합은 설립 직후 부흥정비계획의 책정작업을 진행, 1978년에 ‘고베시도시 경관조례’가 설정된 것을 계기로 난징마치를 중국풍 외관으로 하기 위한 기술 및 자금 지원에 관한 요청서를 고베시에 제출했다. 또한 동 조합은 난징마치에 조합원, 시의 직원, 컨설턴트를 중심으로 한 ‘마을만들기협의회’를 조직하여 실질적인 사업의 기본설계의 검토와 협의를 거쳐 1981년 ‘정비사업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 시행 계획은 동서 160m, 남북 110m의 난징마치에 거리폭 8 m의 중심 도로를 건설하고, 가로등 15기와 나무를 심고, 난징마치의 동서남북의 교차지에 차이나플라자(307㎡) 를 설치, 중국풍의 정자와 패루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였다.³⁵⁾ 즉, 동 조합이 난징마치 조성 계획 작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동 조합은 이 계획에 따라 1982년 남쪽 패루인 南樓門(海榮門)을 설치했다. 이 문은 높이 7.6m로 2층 지붕에 용과 봉황이 조각된 호화스런 것이다. ‘南京町’라는 글자는 당시 神戸中華同文學學校의 李萬之 교장이 썼다. 이어 1983년 고베모토마치라이온스클럽이 차이나플라자 한가운데에 높이 6.8 m, 직경3 m의 6각 건축물인 중국풍의 정자를 기증했다. 1985년에는 난징마치의 정문이라 할 수 있는 패루 長安門이 준공되었다. 이 문은 중국과 일본의 영원한 평화와 우호를 기원하는 뜻을 담아 약 100명의 석조 기술자가 1년 반의 시간을 들여 제작했다. 이어 1987년에는 차이나플라자에 중국풍의 공중전화박스를 설치하고, 1988년에는 난징마치의 북문 입구에 대리석으로 만든 중국 사자상이, 이듬해인 1989년에는 차이나플라자에 12 支를 새긴 석상이 각각 설치됐다.³⁶⁾

35) 南京町振興組合, 『南京町の沿革』, 1994, 2쪽.

36) 南京町振興組合, 같은 글, 1994, 2-5쪽.

이러한 동 조합 주도의 차이나타운 조성 추진 결과, 고베시도시경관심의회는 1990년 고베시장에게 난징마치를 도시경관형성지역으로 지정하도록 요구하는 답신서(答申書)를 제출하여 이것이 채택되었다. 이로서 난징마치는 보다 중국 정취 풍부한 매력 있는 차이나타운을 조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즉, 새로운 건물의 개축, 신축되는 중국풍 건조물에 대해 경관형성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고베시로부터 조성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³⁷⁾

고베시는 답신서를 토대로 그해 난징마치를 고베시도시경관조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난징마치와 그 주변을 경관형성지역으로 지정했다. 동 조합은 이 조례를 활용하여 1993년 중국풍 건물인 난징마치회관인 臥龍殿을 건축했다. 臥龍殿의 글자는 고베화교 역사작가로 유명한 陳舜臣씨의 휘호다.³⁸⁾

이처럼 난징마치의 차이나타운 조성은 동 조합의 자발적이면서 주체적인 추진과 고베시가 여기에 호응하는 형태로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 장기적이면서 단계적으로 중화풍의 경관을 갖추게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인천차이나타운의 조성은 번영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한 것이 아니라 인천시와 중구청 등의 관 주도하에 일반적으로 추진되었다.³⁹⁾

한편, 난징마치의 차이나타운 조성은 각계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동 조합은 1986년 일본정부의 建設大臣으로부터 매력적인 마을만들기 추진의 공로로 감사장을 받았으며, 또한 특색있는 마을경관만들기의 공로로 1986년6월25일 효고현 지사로부터 공로패를 수상했다.

37) 南京町振興組合編, 『南京町通信』(1990年8月), 5-6쪽.

38) 南京町振興組合, 같은 글, 1994, 5-6쪽. 陳舜臣은 『阿片戰爭』, 『諸葛孔明』, 『太平天國』 등 수많은 역사소설을 집필하여 동아시아에 많은 독자를 확보한 고베화교다. 2014년5월 고베시에 『陳舜臣アジア文藝館』이 개설되었다.

39) 이창호, 앞의 논문, 2007, 259쪽. 인천차이나타운 조성 사업은 중구청 주도하에 제1단계 사업(2001-2004년)과 제2단계 사업(2004-2005년)이 끝난 상태다.

3. 구정축제의 기획 및 개최

다음은 南京町商店街振興組合이 난징마치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한 구정축제에 대해 살펴보자.

동 조합이 구정축제를 기획하기 시작한 것은 1986년으로 보인다. 동 조합의 1986년도의 각 부서의 계획서에, 사업부의 계획 가운데 하나로 구정축제의 성공적 개최가 포함되어 있다. 동 조합이 구정축제를 포함시킨 이유는 네 가지였다. 첫째, 회원 전원참가에 의한 단결, 둘째, 난징마치의 홍보, 셋째, 이벤트 성공으로 각 상점의 영업 이익 증대, 넷째, 난징마치의 인지도 제고.

동 조합의 1986년 조직도를 보면, 이사장(일본인) 밑에 3명(2명은 일본인, 1명은 화교)의 부이사장을 두었다. 각 부이사장 밑에는 환경부장, 사업부장 및 재무부장, 총무부장을 두었다.⁴⁰⁾

한편, 구정축제를 주요한 이벤트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동 조합은 “신정은 각 가정에서 쉬는 국민적 행사로 정착되어 있지만 구정을 쉬는 풍습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아직도 구정을 쉬는 풍습이 있다. 또한 시기적으로도 이 시기는 한산하고 관계 단체 및 각 상점가 분들도 참가하기 쉬운 때라 기획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동 조합은 구정축제 기획의 기본 개념을 ‘난징마치다움’에 두고 다음의 다섯 가지를 추구했다. 첫째, 중국의 이국정취, 둘째, 봄비는 분위기, 셋째, 노점(露店)이 있는 밝고 안심할 수 있는 분위기, 넷째, 원색의 현란함과 폭죽소리로 활기찬 분위기 조성, 다섯째, 중국 정취 넘치는 요리.⁴¹⁾

동 조합은 이러한 기획 하에 1986년10월7일부터 1박2일간 나가사키의 신치중화가를 견학하고, 중화가 관계자와 교류회를 가졌다. 견학 후 동 조

40) 南京町振興組合編, 『南京町通信』(1986年10月(創刊號)), 4-5쪽.

41) 南京町振興組合編, 『南京町通信』(1986年10月(創刊號)), 7-8쪽.

합은 구정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특별한 이벤트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용춤 및 용퍼레이드의 기획을 수립했다. 같은 해 10월15일부터 2박3일간 3명의 동 조합 회원이 홍콩을 방문하여 행사 용품(용, 악기, 각종 의류)을 구매했다.⁴²⁾ 동 조합은 약 40m에 달하는 용을 움직이는데 약 50-60명의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춤애호회를 조직하여 일반인의 참가자를 모집했다.

1987년 1월29일부터 2월1일 사이의 4일간에 걸쳐 개최된 제1회 구정축제는 방문객이 29만명에 달했으며, 동 조합의 청년부 회원이 중심이 된 용춤 및 용 퍼레이드는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당시 동 조합의 이사장인 이쿠시마이와히코(生島巖彦)는 구정축제의 최대의 성과로 ‘고베의 난킹마치’라는 이미지가 전국적으로 정착하고 고베의 관광거점으로서 인지되었다는 데 두었다.⁴³⁾

제1회 구정축제의 프로그램은 동 조합 청년부의 용춤, 고베화교총회의 회원에 의한 사자춤, 神戸中華同文學校 학생에 의한 중국 무용 등이 피로 되어 고베화교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이뤄진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구정 축제에서 인기를 끈 것은 각 점포 앞에 설치된 노점이었다. 노점은 동 조합 직영매점 3개소, 조합원 참가 노점 54개소, 기타 3개소를 포함하여 약 60개소에 달했다. 노점은 요코하마와 나가사키의 중화가에는 설치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난킹마치의 풍물로 방문객의 큰 인기를 끌었다.⁴⁴⁾ 이 행사 후 난킹마치의 노점은 평상시에도 설치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는데 난킹마치의 명물이 되었다.

제1회 구정축제는 수지면에서도 좋은 성과를 올렸다. 수입의 내역을 보면, 고베시 지원금은 20만엔에 불과하고 동 조합에서 150만엔, 주변 기업의

42) 南京町振興組合編, 『南京町通信』(1986年10月(創刊號)), 13-14쪽.

43) 南京町商店街振興組合, 『南京町通信』(1987年2月·3月), 1쪽.

44) 南京町商店街振興組合, 『南京町通信』(1987年2月·3月), 9-10쪽.

협찬금 358만4,400엔, 동 조합회원의 축의금 766만5,000엔, 노점매상수입 175만8,800엔, 기타 55만1108엔으로 총 1,525만9,308엔이었다. 지출의 내역을 보면, 광고비가 95만3,800엔, 이벤트용품구입비가 374만3,754엔, 이벤트 출연료지출이 150만엔, 운영비가 132만5,815엔, 노점 등의 설치비가 122만7,400엔, 아르바이트 및 경비 비용 165만엔, 기타 208만9,320엔, 총 1249만89엔이었다.⁴⁵⁾ 수입이 지출을 훨씬 능가하는 흑자 행사였던 것이다.

제1회 구정축제가 성공을 거둬에 따라 그 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다만 소화천황(昭和天皇)이 서거한 1989년, 고베대지진이 일어난 1995년은 구정축제 개최가 취소되었다.⁴⁶⁾ 구정축제는 구정에 해당하는 날을 중심으로 3-4일간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7-8일을 개최한 적도 있다. 구정축제 기간 중 난카이마치의 방문객 수는 제1회 때 29만 명을 시작으로 평균 30-40만 명에 달한다.(표1참고) 난카이마치 구정축제가 고베의 대표적인 연중행사로 정착하자 고베시는 1997년 동 축제를 지역무형민속문화재로 지정했다.

〈표 1. 고베 난카이마치 구정축제의 기간 및 방문객 수〉

회수	연도	개최일	구정일	방문객수(만명)
제1회	1987	1월29일-2월1일(4일간)	1월29일	29
제2회	1988	2월18일-2월21일(4일간)	2월18일	35
제3회	1990	1월26일-1월28일(3일간)	1월27일	30
제4회	1991	2월15일-2월17일(3일간)	2월15일	28
제5회	1992	2월7일-2월9일(3일간)	2월4일	37
제6회	1993	1월22일-24일(3일간)	1월23일	38
제7회	1994	2월11일-2월13일(3일간)	2월10일	40
제8회	1996	2월23일-25일(3일간)	2월19일	38.5

45) 南京町商店街振興組合, 『南京町通信』(1987년2월·3월), 3쪽.

46) 대지진으로 인한 고베화교의 피해에 대해서는 安井·陳·過(1996)가 매우 상세하다.

회수	연도	개최일	구정일	방문객수(만명)
제9회	1997	2월7일-9일(3일간)	2월8일	46
제10회	1998	1월30일-2월1일(3일간)	1월28일	39.9
제11회	1999	2월19일-21일(3일간)	2월16일	41
제12회	2000	2월4일-6일(3일간)	2월5일	36.9
제13회	2001	1월26일-28일(3일간)	1월24일	30.5
제14회	2002	2월15일-17일(3일간)	2월12일	38.5
제15회	2003	1월31일-2월2일(3일간)	1월28일	41
제16회	2004	1월22일-25일(4일간)	1월22일	40
제17회	2005	2월0일-20일(12일간)	2월9일	58.1
제18회	2006	1월29일-2월5일(8일간)	1월29일	34.9
제19회	2007	2월23일-25일(3일간)	2월18일	33.7
제20회	2008	2월7일-11일(5일간)	2월7일	38.6
제21회	2009	1월26일-2월1일(7일간)	1월26일	35.7
제22회	2010	2월14일-21일(8일간)	2월14일	42.4
제23회	2011	2월3일-6일(4일간)	2월3일	34.9
제24회	2012	1월23일-29일(7일간)	1월23일	
제25회	2013	2월10일-17일(8일간)	2월10일	
제26회	2014	1월31일-2월2일(3일간)	1월31일	

자료: 神戸華僑歴史博物館編, 『神戸華僑歴史博物館通信』No.17(2013年11月30日), 1쪽을 근거로 필자 작성.

필자는 2014년2월1일 제26회 구정축제를 견학했다. 주요한 무대가 설치된 차이나프라자 주변은 입추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붐볐다. 외국인 방문객도 많이 눈에 띄었는데, 중국인 관광객은 물론이고 한국인, 서양인도 많았다. 노점에서 중국인 유학생으로 보이는 점원이 서투른 일본어로 호객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제26회 구정축제의 프로그램은 제1회 축제에 비해 참가단체가 늘어나고 프로그램은 보다 다채로워졌다. <표 2>는 지난 1월31일부터 2월2일 사이에 개최된 제26회 구정축제의 프로그램이다.

1월31일 개최된 ‘中國史人遊行’은 일반 시민을 京劇의 의상과 화장 시키고, 삼국지의 영웅과 양귀비로 분장시켜 난징마치 주변의 거리를 약 5시간에 걸쳐 퍼레이드 하는 행사다. 제1회 대회 때부터 시작된 용춤은 神戸市立兵庫商業高等學校의 龍獅團에 의해 실시되었고, 龍獅團은 이외에도 사자춤 공연도 했다. 神戸華僑總會의 舞獅隊, 난징마치의 龍獅團은 사자춤 공연을 했다. 神戸華僑總會는 이외에도 동 총회 태극권협회가 태극권을, 동 총회 華藝民間舞蹈隊가 무용을, 동 총회의 民族樂器團이 악기연주를 하는 등 고베화교의 사회단체로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구정축제에 참가했다. 그리고 고베화교유치원의 원아의 연기, 神戸中華同文學校의 학생에 의한 무용 및 사자춤의 연기가 펼쳐졌다.

한편, 구정축제에 화교만이 참가하는 것은 아니다. 동 조합 회원의 6할은 일본인이며, 용퍼레이드를 담당하는 난징마치 舞龍隊 멤버의 상당수는 일본인이다. 또한 神戸市立兵庫商業高等學校의 龍獅團은 1988년 결성되어 매년 구정축제에서 용춤, 사자춤 공연을 한다.⁴⁷⁾ 화교와 일본인이 구정축제에 함께 하는 모습은 요코하마 중화가의 구정축제에서는 잘 볼 수 없는 광경이다.

〈표 2. 제26회 구정축제의 프로그램〉

시 간	1월31일(금요일)	2월1일(토요일)	2월2일(일요일)
10:30	무사기원 제사	-	-
11:00	개막	11:00 태극권	11:00 음악
11:30	變臉	11:45 사자춤	11:30 사자춤
12:00	中國史人遊行	12:30 變臉	12:00 태극권
13:00	고베화교유치원연기	13:00 노래	13:00 음악
13:30	노래		13:30 용춤, 사자춤
14:00	태극권	12:00 變臉	14:00 花架拳

47) 王維, 앞의 책, 2001, 176-180쪽.

시 간	1월31일(금요일)	2월1일(토요일)	2월2일(일요일)
		12:30 무용	14:30 사자춤
15:00	노래	15:00 태극권	15:00 태극권 15:30 무용
16:00	變臉	16:00 용춤, 사자춤	16:00 變臉
16:30	노래		16:30 花架拳
17:00	中國史人遊行	17:00 무용	17:00 무용 17:30 사자춤
18:00	變臉	18:00 용춤사자춤	18:00 노래 18:30 變臉
19:00	사자춤	19:00 變臉	19:00 사자춤
20:00		20:00 사자춤	20:00 사자춤

자료: 南京町商店街振興組合의 배포 자료를 참고로 필자 작성.

다음은 구정축제의 예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전체적으로 볼 때, 구정축제의 예산은 제1회 때보다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4년 개최된 제16회 구정축제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수입의 내역은, 고베시 등으로부터의 보조금이 375만엔으로 전체의 16%, 각 기업과 타 상점가진흥조합으로부터의 협찬금이 636만9,475엔으로 전체의 27%, 동 조합의 조합원 84명으로부터의 협찬금이 544만8천엔으로 전체의 23%, 노점매상금이 365만5400엔으로 전체의 15%, 기타 19%였다. 동 조합이 구정축제로 부담한 금액은 전체의 약 사분의 일에 불과하며 그 이외는 보조금, 협찬금, 노점 수익금 등으로 조달된 것이다. 지출의 내역을 보면, 행사 관계가 730만8,625엔으로 전체의 31%, 歌舞團 관계가 463만959엔으로 전체의 20%로 이벤트 관계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그 이외 노점 설치가 247만1,892엔으로 10%, 경비관계가 223만9,440엔으로 9%를 차지했다.⁴⁸⁾

그러나 난징마치가 모든 면에서 순조롭게 발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48) 南京町商店街振興組合, 『南京町通信』(1987년6월), 10쪽.

예를 들면, 난징마치의 舊華僑 상점주와 대륙계 新華僑 상점주 간의 마찰, 이벤트 자금의 부족, 독창적인 상품 개발과 점원 서비스의 결여 등을 들 수 있다.⁴⁹⁾ 여기에 최근 중일간의 정치적 마찰 증가로 난징마치를 찾는 관광객 수가 줄어들었다는 후문이다.

한편, 인천차이나타운은 1998년부터 ‘인천중국문화관광페스티벌’이라는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행사 기간 중 적지 않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그러나 난징마치의 구정축제와 비교해 볼 때 행사 프로그램에는 큰 차가 없지만 그 운영에는 다른 점이 있다. 즉, 난징마치의 구정축제의 행사 주체는 어디까지나 南京町商店街振興組合인데 반해, 인천차이나타운은 번영회가 아니라 행정기관이 행사공연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회사에 외주를 주어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인천화교 단체나 화교학교의 참가가 빈약하고 중국, 대만 등지에서 용춤과 사자춤 전문 공연단을 많이 초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IV. 난징마치를 지탱하는 고베화교 관련 단체

앞 장에서 고베 난징마치 조성에서 南京町商店街振興組合과 고베시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고베 난징마치의 조성 and 유지에는 이외에 많은 화교 단체와 화교 연구기관 등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본 장에서는 이들 화교 단체와 화교 연구기관의 활동이 차이나타운의 조성 and 활성화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49) 宋晨陽, 「神戸南京町の發展と今後:華僑のファミリー・ヒストリーを踏まえて」, 神戸華僑華人研究會定例會發表文, 2014.7.12

1. 각 동향회 조직과 연중행사

고베는 일본의 다른 지역보다 화교의 동향회 활동이 매우 활발한 지역이다. 고베화교의 동향회 조직은 현재 6개가 존재한다. 인천화교의 경우 근대시기 南幫, 山東幫, 廣東幫 등 세 개의 동향회 조직이 있었지만 현재 활동하는 곳은 한 곳도 없는 것과 대조된다.

일본의 패전 이전 고베화교사회에는 廣東公所, 福建公所, 三江公所가 설립되어 동향회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지만, 중일전쟁 이후 일제 당국에 의해 해산되어 神阪中華總商會에 통폐합되었다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다.

중전 직후 각 지역의 동향회 조직이 재조직되기 시작한 것은 중일국교 정상화를 전후한 시기다. 福建同鄉會가 다시 설립된 것은 1971년이고, 江蘇同鄉會와 廣東同鄉會는 1972년, 臺灣同鄉會는 1973년, 山東省同鄉會는 1983년, 浙江省同鄉會는 1989년에 각각 설립되었다.⁵⁰⁾

중국 대륙에서 신화교의 이주가 대량으로 이뤄지기 이전인 1982년의 고베화교 인구는 9,200명이었는데, 각 출신성별 인구는 臺灣이 3,600명, 廣東省이 2,000명, 江蘇省이 1,100명, 福建省이 1,000명, 山東省이 650명, 浙江省이 450명, 기타 400명의 순이었다.⁵¹⁾

각 동향회의 설립 목적은 기본적으로 회원 간 친목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 臺灣同鄉會의 설립 취지를 보면, 1)회원 간 친목과 상호의 경제발전 도모, 2)회원의 생활향상 촉진과 문화경제교류의 긴밀화, 3)회원의 복지증진, 의 세 가지다.⁵²⁾ 山東省同鄉會는 회원 간의 친목과 복지 그리고 생활향상을 위한 상호협조, 고향의 문화도덕의 창달을 설립 취지로

50) 神戸新聞社編, 앞의 책, 1987, 152-153쪽;王維, 앞의 책, 2001, 149쪽;財團法人三江會館編, 『神戸三江會館簡史1912-2007』, 2007, 65쪽.

51) 兵庫縣山東省同鄉會編, 『兵庫縣山東省同鄉會創立紀念刊』, 1984, 7쪽.

52) 社團法人兵庫縣臺灣同鄉會, 『兵庫縣臺灣同鄉會創立20周年記念誌』, 1993, 2쪽.

하고 있다.⁵³⁾

1939년 해체되었던 각 公所도 中華總商會로부터 독립하여 새롭게 재조직되었다. 1983년에는 三江會館이 설립되어 동향 자제의 교육지원, 노인복지, 중일우호교류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⁵⁴⁾ 福建公所도 中華總商會로부터 독립하여 福建會館을 설립했다. 그러나 廣東公所는 廣東省 출신자 대부분이 中華總商會에 참가하고 있고, 그 자리에 1979년 中華總商會 건물을 세웠기 때문에 廣東會館을 설립하지 않기로 결의하여 자체의 회관은 없는 상태다.

中華會館은 이러한 동향회 조직을 바탕으로 설립되었는데, 고베대공습 때 완전히 소실되어 새로운 건물이 건축된 것은 1998년이었다. 2013년 中華會館 총회에서 승인된 법인의 설립 목적은 화교의 전통문화 계승, 화교의 복지향상, 그리고 중일우호증진에 두고 있다. 주요한 사업으로는 화교의 공동자산인 中華義莊, 關帝廟의 관리와 화교의 각종 전통 제사의 계승이다.⁵⁵⁾

中華義莊은 고베와 오사카화교가 사용하는 공동묘지이다. 이 공동묘지는 1870년에 창건되어 묘지 주변이 시가지가 되면서 공중위생과 도시계획의 관점에서 中華會館이 중심이 되어 1941년 현재의 위치로 이전,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 공동묘지에는 釋迦如來, 福德正神, 觀音菩薩, 地藏菩薩을 제사지내는 禮堂이 갖추어져 있다. 1997년10월 현재 묘지 이용자 수는 842명, 납골당 이용자수는 247명이다.⁵⁶⁾ 양력 4월5일 청명절에는 中華會館의 임원이 공식행사로서 禮堂을 참배한다.

關帝廟는 삼국지에 등장하는 관우를 제사지내는 사당으로 일본에는 고

53) 兵庫縣山東省同鄉會編, 『兵庫縣山東省同鄉會創立紀念刊』, 1984, 9쪽.

54) 財團法人三江會館, 앞의 책, 2007, 64쪽.

55) 中華會館編, 앞의 책, 2013, 386쪽.

56) 中華會館編, 앞의 책, 2013, 320-328쪽.

베 이외에 요코하마 중화가와 오사카에도 있다. 현재의 關帝廟은 1888년에 건립되어 1945년 고베대공습, 1977년 화재, 1995년 고베대지진 때 각각 소실 혹은 큰 피해를 입었으나, 그때마다 中華會館이 중심이 되어 재건을 거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關帝廟 중앙에는 主神인 관우, 오른쪽에는 관음보살, 왼쪽에는 天后聖母가 안치되어 있다. 天后聖母는 항해의 여신으로 福建省과 대만에서는 媽祖로 불린다.⁵⁷⁾ 인천차이나타운의 義善堂에도 이와 같은 신을 모시고 있다.

〈표 3. 고베화교의 연중 행사〉

제사 및 행사	개최장소	기일(음력)
春節祭(구정축제)	난징마치	1월1일 전후
關帝成道日	관제묘	1월13일
福德正神聖誕	관제묘	2월2일
觀音菩薩聖誕	관제묘	2월19일
清明節	중화의장	4월5일(양력)
媽祖誕生日	관제묘	5월5일
關帝祭	관제묘	5월13일
觀音祭	관제묘	6월19일
普度勝會	관제묘	7월14-16일
仲秋節	난징마치	8월15일
觀音祭	관제묘	9월19일
國慶節(건국기념일)	화교총회	10월1(양력)

자료:王維, 앞의 책, 2003, 176쪽.

關帝廟에서는 고베화교의 각종 전통문화 행사가 개최된다. 음력 1월13일에는 關帝成道日, 2월2일과 19일에는 촌락의 수호신인 福德正神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제사, 관음보살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제사, 5월5일에는 媽

57) 中華會館編, 앞의 책, 2013, 334-338쪽.

祖의 탄생을 기념하는 제사, 13일에는 관우의 제사, 6월19일과 9월19일에는 관음보살의 제사, 7월14일부터 3일간은 普度勝會가 개최된다.(〈표3참고〉)

이 가운데 普度勝會는 고베화교사회 최대의 전통행사로 특히 福建省의 福清縣 출신이 1934년부터 이 전통을 이어왔는데 지금도 이 행사의 준비와 집행은 福建同鄉會에서 담당하고 있다. 普度勝會는 조상의 영혼을 추모하는 일련의 행사로 불교식으로 이뤄진다.⁵⁸⁾ 이 행사는 1997년 고베시로부터 지역무형민속문화재로 지정되었다. 福建同鄉會는 普度勝會 이외에도 관제묘의 연중행사인 福德正神聖誕, 媽祖誕生日, 關帝祭 등의 제사를 담당하고 있다.⁵⁹⁾

한편, 고베화교를 하나로 묶어주는데 神戸中華同文學校의 존재는 매우 중요하다. 고베에는 1899년 神戸華僑同文學校가 설립되어 1900년에 개교했다. 이어 1914년과 1919년에는 각각 神戸華強學校와 中華學校가 설립되어 1928년에는 두 학교가 합병하여 神阪中華公學으로 교명을 바꾸었다. 1939년에는 神戸華僑同文學校와 神阪中華公學이 통합되어 현재의 神戸中華同文學校가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학교는 초등부와 중등부를 둔 초중 일관학교로 재학생은 2012년도 18학급 약 686명이다. 현재 재학생의 다수는 화교 혹은 화인의 자제가 차지하고 일본인 학생이 2할을 차지한다. 학생의 국적은 일본, 중국, 대만, 한국, 홍콩, 마카오, 영국, 싱가포르 등 12개 국으로 국제학교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⁶⁰⁾

이 학교는 고베화교의 문화전통 계승과 아이덴티티 유지 그리고 차세대

58) 王維, 앞의 책, 2001, 155-156쪽.

59) 張玉玲, 『華僑文化の創出とアイデンティティ : 中華學校・獅子舞・關帝廟・歴史博物館』, unite, 2008, 122-123쪽.

60) 神戸中華同文學校의 홈페이지(<http://www.tongwen.ed.jp>).

고베화교의 육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동 학교는 매년 개최되는 구정축제 때 중국 전통 무용과 사자춤 공연을 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다.

2. 고베화교 연구단체와 神戸華僑歷史博物館

차이나타운의 조성과 활성화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화교 및 그들의 각종 행사와 기록을 보존하고 연구하는 활동이다. 고베에는 화교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神戸華僑華人研究會, 고베화교의 구술을 채록하여 기록하는 神阪京화교구술기록연구회, 지역 화교의 역사를 보존하고 전시하는 神戸華僑歷史博物館이 있다. 이들 세 단체는 난징마치를 보다 차이나타운답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들 각 단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1) 神戸華僑華人研究會

고베 지역 지식인이 고베화교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들어서다. 일본인 연구자인 고타마토시오(鴻山俊雄)가 화교문제연구소를 설립하여 『日華月報』를 1966년 10월부터 1990년 7월까지 총 271호를 발행하여 활동했지만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활동에 불과했으며 전문적인 연구라고는 할 수 없었다.⁶¹⁾ 그리고 화교로서는 당시 神戸中華總商會長인 陳德仁(1917-1998)씨가 개인적으로 고베화교사를 쓰기 위해 각종 자료와 사료를 수집하고 있었다.

神戸華僑華人研究會가 설립된 것은 1987년이다. 1985년 나가사키에 나가사키화교연구회가 설립되어 일본에서 지역 화교에 관한 학제적인 화교연구가 시작된 것에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당시 고베대학의 야스이

61) 神戸華僑歷史博物館編, 『神戸華僑歷史博物館創設30周年記念誌(1979-2009)』, 2009, 76쪽.

산기치(安井三吉) 교수와 陳德仁씨가 중심이 되어 간사이(關西)지역의 화교와 화인, 연구자, 시민이 참가하여 설립되었다.

이 연구회는 지난 26년 동안 평균 2, 3개월에 한 번의 회수로 화교 관련 발표회(例會)를 개최해왔다. 2014년2월8일에는 149회의 발표회를 개최했다. 동 연구회는 연구 발표회와 기념강연회(지금까지 24회)의 내용을 담은 통신을 1988년7월부터 발행하고 있다. 2014년 5월17일까지 총 72호를 발행했다.⁶²⁾

2014년3월 현재의 회원은 89명이다. 일반회원이 54명, 학생회원이 17명, 통신회원이 14명, 특별회원이 4명이다. 회비는 일반회원의 경우 연간 3천 엔이다. 연 수입은 회비수입이 16만8,000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2013년도의 연구회의 지출은 발표장 대여료 2만5,050엔, 강사 사례비 2만5,000엔, 통신비 1만7,270엔, 인쇄비 6,710엔, 문구 및 잡비 6,794엔, 사무국원비 3만5,000엔, 뒷풀이 부족분 지출 2만425엔으로 총13만6,249엔이다. 연구회 운영이 회원의 회비로 이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⁶³⁾

연구발표회는 주제가 고베화교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화교 일반에 걸쳐 있고, 발표회 참석자 수는 평균 20-30명이다. 2008년에는 연구회 창립 20주년 기념지를 발행했다.⁶⁴⁾ 이 연구회는 일본 정부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받아 고베화교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학술적 연구를 수행했으며, 새로운 화교사 발굴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일본인 시민과 화교 간의 교류의 장을 제공해줄 뿐 아니라 각 대학의 대학원생과 유학생에게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여 차세대 연구자 육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62) 神戸華僑華人研究會編, 『通讯』第72號, 2014年5月17日.

63) 神戸華僑華人研究會 第27回總會報告(2014年4月12日) 자료.

64) 神戸華僑華人研究會編, 『神戸華僑華人研究會創立20周年記念誌』, 2008.

2) 神阪京화교구술기록연구회

이 연구회는 고베, 오사카, 교토를 중심으로 화교의 생애를 인터뷰를 통해 체계적, 계속적으로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2007년4월 발족된 연구회다. 인터뷰의 대상은 舊華僑가 주된 대상이지만 대만계와 대륙계 新華僑도 포함된다. 이 연구회는 神戶華僑歷史博物館 산하의 연구 기관으로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다.

지금까지 일본화교에 관한 역사는 문헌 조사를 중심으로 연구가 추진되어 많은 서적, 논문, 보고서가 발표되었지만, 화교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생애사의 기록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이 연구회가 발족된 주요한 문제의식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연구회는 2007년1월27일 연구회 프로젝트 시동에 앞서 “고베화교의 구술기록을 남기기 위하여-그 의미와 방법”이라는 제목의 심포지엄을 고베의 중화회관에서 개최하고, 이 프로젝트의 활동취지에 찬동하는 연구자들이 참가하여 그해 4월 연구회가 발족되었다.

연구회의 활동거점은 神戶華僑歷史博物館이다. 연구회의 대표는 京都精華大學의 吳宏明 교수, 생애사의 책자 발행의 편집 담당은 대륙계 新華僑인 山口縣立大學의 張玉玲 교수다.

이 연구회는 지금까지 5권의 구술 생애사 보고서를 발행했다. 2008년에 1호를 발간하고, 매년 한 차례 발행하다 2012년은 사정으로 발행되지 못했으며, 2013년에는 제5호가 발행되었다. 총 5권의 보고서에 수록된 화교는 총28명이다.

이 연구회의 구술 작업과 편집 작업은 매우 치밀하게 이뤄진다. 조사원 2-3명이 해당 화교를 방문하여 생애에 관한 구술조사를 실시한다. 질문내용은 사전에 준비하지만 실제 인터뷰 현장에서는 인터뷰의 흐름에 따라 임기응변식으로 행하기도 한다. 1회의 인터뷰 시간은 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는 2회에 걸쳐 인터뷰 할 경우도 있다. 인터뷰가 종료되면 녹음한 내용을 원고로 작성하고, 이 원고는 1, 2개월에 한 번 개

최되는 연구회의 例會에 조사원이 직접 보고를 하고 이에 대해 연구회원의 활발한 질문이 이뤄진다. 이를 바탕으로 조사원이 다시 원고를 작성한 후, 내용을 인터뷰한 화교에게 확인을 받고, 필요에 따라 삭제, 수정 등을 행한다. 조사원은 수정한 원고를 정리하여 편집담당자와 神戸華僑歷史博物館의 최종 점검을 받아 12월에 발행된다.⁶⁵⁾ 보고서의 분량은 약 130쪽 정도다.

이 연구회의 활동에 자극받아 요코하마 중화회관과 요코하마개항자료관은 11명의 요코하마 화교의 구술기록을 정리하여 출판했다.⁶⁶⁾

3) 神戸華僑歷史博物館

난징마치의 西安門을 나와 해안 쪽으로 약 5분 걸어가다 보면 神戸中華總商會(KCC)빌딩이 나온다. 이 건물의 2층에 神戸華僑歷史博物館이 있다. 이곳은 일본에서 유일한 화교 전문 박물관이다. 필자가 방문한 2014년 2월1일에 동 박물관에서 난징마치 구정축제 사진전이 개최되고 있었다. 1월23일부터 2월25일까지 약 한달 동안 개최되는 특별전시회로 구정축제로 난징마치를 방문한 사람들이 이곳을 많이 찾고 있었다.

神戸華僑歷史博物館이 설립된 것은 1979년으로 올해로 35년째를 맞이한다. 당시 神戸中華總商會長이던 陳德仁씨가 고베화교사를 기록하기 위해 20여 년 동안 모아온 자료와 화교와 시민의 기증품을 기반으로 개관했다.

동 박물관의 자료는 陳德仁씨가 수집한 기증 자료(陳德仁컬렉션)가 중심이고 그 후 石嘉成컬렉션, 神阪僑務分處僑務당안, 游仲勳컬렉션이 추가되었다. 陳德仁씨는 화교 2세로서 전후 神戸中華青年會의 總幹事, 神戸中

65) 神阪京華僑口述記錄研究會編, 『聞き書き・關西華僑のライフヒストリー-第5號』, 神戸華僑歷史博物館, 2013, 122-126쪽.

66) 財團法人中華會館·横浜開港資料編, 『横浜華僑の記憶:横浜華僑口述歷史記錄集』, 財團法人中華會館, 2010.

華同文學學校의 이사장, 神戸中華總商會長 등의 요직을 지낸 인물이라 이상의 단체 관련 문서를 많이 소장하고 있었다. 陳德仁컬렉션의 총수는 1,887점에 달한다.⁶⁷⁾ 동 박물관에는 연구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安井三吉 교수가 2004년부터 연구실장으로 근무하며 기증 자료의 목록화 작업을 하고 있다. 박물관에는 많은 1차 자료가 있기 때문에 화교 연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동 박물관의 전시관에는 1860년대부터 약 140년간의 고베화교의 역사를 시대 순으로 전시하고 있다. 전시를 주제별로 보면, ‘고베 개항과 중국인의 이주’, ‘신해혁명과 화교’, ‘화교사회의 발전’, ‘항일전쟁과 화교’, ‘화교사회의 부흥’, ‘공생공영의 시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박물관은 2003년 6월부터 『通信』을 발행하고 있고, 현재까지 총 21호를 발행했다. 『通信』의 일지 난에는 동 박물관을 방문한 단체 방문단과 인원이 기록되어 있다. 2013년 1월-8월의 단체 방문 난에는 일본 각 대학의 학생과 지자체의 국제교류원, 그리고 대만의 대학생과 國父記念館 직원이 방문한 것이 기록되어 있었다.⁶⁸⁾

동 박물관은 神戸華僑歷史博物館發展基金會의 재정적 지원과 운영위원회에 의해 운영된다. 기금회의 회원은 2010년도에 107명, 모금액은 120만엔에 달했다.⁶⁹⁾ 이 발전기금으로 박물관의 제반 운영비가 지출되며, 박물관의 가이드는 자원봉사자가 담당하고 있다. 박물관의 입장료는 300엔이다.

이상에서 神戸華僑華人研究會, 神阪京화교구술기록연구회, 神戸華僑歷史博物館에 대해 각각 살펴봤는데, 현재 인천지역에는 이런 연구회나 박

67) 安井三吉, 『神戸華僑歷史博物館と孫文書 『天下爲公』碑』, 『海港都市研究』5, 2010, 100-101쪽; 神戸華僑歷史博物館, 『陳德仁コレクション(文書)』, 2007.

68) 神戸華僑歷史博物館編, 『神戸華僑歷史博物館通信』No.21, 2013년 11월 30일.

69) 神戸華僑歷史博物館編, 『神戸華僑歷史博物館通信』No.17, 2011년 3월 31일.

물관이 없다. 인천차이나타운이 관 주도로 조성되고 있는 배경에는 이와 같은 연구단체의 부재와 인천화교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V. 결론

이상의 검토를 통해, 고베 난징마치는 1920년대까지 차이나타운으로서 번성하지만, 그 후 점차 쇠퇴하여 1960년대는 차이나타운으로서의 기능을 거의 상실한 상태에 있었지만, 1980년대부터 南京町商店街振興組合와 고베시의 난징마치 조성 사업에 힘입어 난징마치는 고베를 대표하는 관광명소, 일본의 3대 차이나타운의 하나로 정착된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고베지역 화교동향회 조직의 활발한 문화 활동과 화교연구단체와 神戸華僑歴史博物館이 난징마치의 문화콘텐츠를 보다 풍요롭게 하고 난징마치를 활성화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고베 난징마치 조성 사례는 인천차이나타운 조성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은 아닐까 한다.

첫째, 인천차이나타운 조성은 기존에 관 주도로 이뤄졌지만 여기서 탈피하여 ‘차이나타운 상가 번영회’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 난징마치의 조성에서 고베시는 어디까지나 조역(助役)이지 주역의 위치에 있지 않았다. 南京町商店街振興組合이 자발적이면서도 주체적으로 난징마치 조성을 주도했으며, 이런 태도가 난징마치의 중국적 경관 조성 and 난징마치 구정축제를 기획하고 성공시킨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차이나타운 상가 번영회’는 지속가능한 인천차이나타운 조성이라는 목표 하에 한국인과 화교 회원이 보다 상호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南京町商店街振興組合의 경우, 조합원의 6할은 일본인, 4할은 화교지만 서로 난징마치 활성화라는 공통 목표 하에서 상호 협력하는 모습을 보

여겼는데, ‘차이나타운 상가 번영회’가 참고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인천화교를 학제적으로 연구하는 가칭 ‘인천화교화인연구회’와 같은 연구회 조직이 필요하다. 그동안 인천화교에 대한 연구는 개별적으로 이뤄져 체계적이고 종합적이지 못했으며, 개별적인 연구 성과가 인천화교와 인천 시민에게 공유되지도 못했던 게 사실이다. 화교 연구자뿐 아니라 화교도 인천 시민도 부담 없이 참가하는 연구회가 조직된다면 올바른 인천차이나타운의 조성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화교 관련 문헌 연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舊華僑를 대상으로 화교 생애 구술사를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것은 인천차이나타운의 역사성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데 중요하다.

넷째, 인천차이나타운 조성과 활성화는 인천화교의 활발한 사회경제 활동과 문화 활동이 근간이 되어야 한다. 인천화교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화교 1세대와 2세대의 고령화로 화교의 전통문화 행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천화교 사회 내부에서 이런 위기적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여 자체적으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데, 화교 협회에 소속된 청년회 조직의 활성화나 이전의 산동동향회와 같은 동향회의 재조직을 통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고는 인천차이나타운 조성의 하나의 모델로서 고베 난징마치를 검토하였기에 후자를 과대평가한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을 것이다. 본문에서 살펴본 대로 고베 난징마치는 舊華僑 상점주와 대륙계 新華僑 상점주 간의 마찰, 이벤트 자금의 부족, 독창적인 상품 개발과 점원 서비스의 결여 등의 새로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인천차이나타운은 고베 난징마치에 비해 차이나타운 조성에 있어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다. 인천차이나타운은 화교의 생활공간이자 경제활동 공간이지만 고베 난징마치는 경제활동 위주의 공간이기 때문에 인천차이나타운은 화교의 생활 자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인천차이나타운에는 화교협회, 화교학교, 화교 문화 활동의 중심

지인 義善堂, 중화기독교회 등이 밀집되어 있는 반면, 고베 난킹마치는 이와 같은 시설이 없고 인근 지역에 산재해 있어 차이나타운으로서의 집중성이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인천차이나타운은 이와 같은 장점과 위에서 제기한 문제를 잘 해결하는 방향으로 조성된다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차이나타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주제어 : 일본의 차이나타운, 고베 난킹마치, 요코하마중화가, 나가사키신치중화가, 고베화교화인연구회, 고베화교역사박물관, 인천차이나타운, 구정축제

(논문투고 : 2014.12.11 / 논문심사완료 : 2014.12.22 / 논문게재 확정일 : 2014.12.23)

참고문헌

◆저서 및 논문

<한국어>(발표연대순)

- 유중하, 「한중수교 15주년 기획연재:일본의 차이나타운들1-코오베와 화상대회 그리고 성냥」, 『플랫폼』, Vol.4, 2007
- 유중하, 「한중수교 15주년 기획연재:일본의 차이나타운들2-나가사키 차이나타운, 신치」, 『플랫폼』, Vol.5, 2007
- 유중하, 「한중수교 15주년 기획연재:일본의 차이나타운들3-부루라이또 요코하마」, 『플랫폼』, Vol.6, 2007
- 이창호, 「한국 화교(華僑)의 사회적 공간과 장소 : 인천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박사논문, 2007
- 이옥련, 『인천 화교 사회의 형성과 전개』, (재)인천문화재단, 2008
- 이동현, 「일본의 3대 차이나타운 특징과 시사점」, 『부산발전포럼』, Vol.115, 2009
- 유예지, 「인천차이나타운 경관의 상업화: 주체별 역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12.
- 李玉蓮, 「근대 개항도시의 화교(華僑)사회와 동아시아 해상네트워크-인천(仁川)과 요코하마(橫濱)를 중심으로」, 『인천연구』제7호, 2013

<일본어>(발표연대순)

- 內田直作, 『日本華僑社會の研究』, 同文館, 1949
- 鴻山俊雄, 『神戸と在留中國人』, 東亞學社, 1954
- 山田信夫編, 『日本華僑と文化摩擦』, 巖南堂書店, 1983

- 兵庫縣山東省同郷會編, 『兵庫縣山東省同郷會創立記念刊』, 1984
- 陳德仁編著, 『辛亥革命と神戸』, 孫中山記念館, 1986
- 神戸新聞社編, 『素顔の華僑: 逆境に耐える力』, 人文書院, 1987
- 讀賣新聞社横浜支局, 『横浜中華街物語』, アドア出版, 1998
- 許淑眞, 『日本における労働移民禁止法の成立: 勅令第352號をめぐって』,
『東アジアの法と社會: 布目潮風博士古稀記念論集』, 汲古書院,
1990a
- 許淑眞, 『労働移民禁止法の施行をめぐって: 大正13年の事例を中心に』, 『社
會學雜誌』, 1990b
- 安井三吉・陳來幸・過放, 『阪神大地震と華僑』, 1996
- 林同春, 『橋を渡る人: 華僑波瀾萬丈私史』, エピック, 1997
- 村上令一, 『横濱中華街的華僑傳』, 新風舎, 1997
- 過放, 『神戸華僑・華人に関する研究動向』, 飯島涉編, 『華僑・華人史研究
の現在』, 汲古書院, 1999a
- 過放, 『在日華僑のアイデンティティの變容: 華僑の多元的共生』, 東信
堂, 1999b
- 日本孫文研究會・神戸華僑華人研究會編, 『孫文と華僑』, 汲古書院, 1999
- 籠谷直人, 『アジア國際通商秩序と近代日本』, 名古屋大學出版會, 2000
- 財團法人孫中山記念會, 『孫中山記念館(移情閣)概要』, 2001
- 王維, 『日本華僑における傳統の再編とエスニシティ: 祭祀と藝能を中心
に』, 風響社, 2001
- 可兒弘明・斯波義信・遊仲勳編, 『華僑・華人事典』, 弘文堂, 2002
- 王維, 『素顔の中華街』, 洋泉社, 2003
- 京都精華大學人文學部吳研究室, 『京都精華大學人文學部國內フィールド
ワーク報告書: 神戸と外國文化No.10』, 2004
- 神戸華僑華人研究會編, 『神戸と華僑: この150年の歩み』, 神戸新聞綜合出

版センター, 2004

山下清海編編, 『華人社會がわかる本: 中國から世界へ広がるネットワークの歴史, 社會, 文化』, 明石書店, 2005

安井三吉, 『帝國日本と華僑: 日本・臺灣・朝鮮』, 青木書店, 2005

財團法人三江會館編, 『神戸三江會館簡史1912-2007』, 2007

神戸華僑歴史博物館, 『陳徳仁コレクション(文書)』, 2007

神戸華僑華人研究會編, 『神戸華僑華人研究會創立20周年記念誌』, 2008

神阪京華僑口述記録研究會編, 『聞き書き・關西華僑のライフヒストリー 第1號』, 神戸華僑歴史博物館, 2008

張玉玲, 『華僑文化の創出とアイデンティティ: 中華學校・獅子舞・關帝廟・歴史博物館』, unite, 2008

林兼正・小田豊二, 『横濱中華街物語』, 集英社, ホーム社, 2009

譚璐美・劉傑, 『新華僑老華僑: 變容する日本の中國人社會』, 文藝春秋, 2008

吉田忠則, 『見えざる隣人: 中國人と日本社會』, 日本經濟新聞社, 2009

神阪京華僑口述記録研究會編, 『聞き書き・關西華僑のライフヒストリー 第2號』, 神戸華僑歴史博物館, 2009

陳優繼, 『ちゃんぽんと長崎華僑』, 長崎新聞社, 2009

神戸華僑歴史博物館編, 『神戸華僑歴史博物館創設30周年記念誌(1979-2009)』, 2009

神阪京華僑口述記録研究會編, 『聞き書き・關西華僑のライフヒストリー 第3號』, 神戸華僑歴史博物館, 2010

財團法人中華會館・横浜開港資料編, 『横浜華僑の記憶: 横浜華僑口述歴史記録集』, 財團法人中華會館, 2010

安井三吉, 『神戸華僑歴史博物館と孫文書『天下爲公』碑』, 『海港都市研究』 5, 2010

- 神阪京華僑口述記錄研究會編, 『聞き書き・關西華僑のライフヒストリー
第4號』, 神戸華僑歴史博物館, 2011
- 林珠榮, 『落涙成珠:ある華僑の詩』, 晃洋書房, 2011
- 孫文記念館編, 『孫文・日本關係人名錄』, 2011
- 孫文記念館編, 『孫文・日本關係人名錄(增訂版)』, 2012
- 李正熙, 『朝鮮華僑と近代東アジア』,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12
- 横浜商科大學編, 『横浜中華街の世界』, 横浜商科大學, 2012
- 神阪京華僑口述記錄研究會編, 『聞き書き・關西華僑のライフヒストリー
第5號』, 神戸華僑歴史博物館, 2013
- 中華會館編, 『落地生根:神戸華僑と神阪中華會館の百年<增訂版>』, 研文
出版, 2013
- 旅日福建同鄉懇親會編, 『旅日福建同鄉懇親會半個世紀的歷程:旅日福建同
鄉懇親會半世紀の歩み』, エピック, 2013
- 宋晨陽, 『神戸南京町の發展と今後:華僑のファミリー・ヒストリーを踏
まえて』, 神戸華僑華人研究會定例會發表文, 2014.7.12

<중국어>

羅晃潮, 『日本華僑史』, 廣東高等教育出版社, 1994

◆자료

- 兵庫縣山東省同鄉會編, 『兵庫縣山東省同鄉會10周年記念刊』, 1993
- 社團法人兵庫縣臺灣同鄉會, 『兵庫縣臺灣同鄉會創立20周年記念誌』, 1993
- 社團法人兵庫縣臺灣同鄉會, 『兵庫縣臺灣同鄉會創立30周年記念誌』, 2003
- 兵庫縣山東省同鄉會編, 『兵庫縣山東省同鄉會20周年記念刊』, 2003
- 神戸華僑歴史博物館編, 『神戸華僑歴史博物館通信』, No.1-21(2003年6月
-2013年11月)

中央史論 40집

神戸華僑華人研究會編, 『通迅』第1號-第72號(1988年7月-2014年5月)

南京町振興組合編, 『南京町通信』(1989年1月-2005年12月)

南京町振興組合 발행의 각종 전단지

Japanese Chinatown: A Case Study on Nanking-machi of Kobe

Yi, Jung-hee

This paper considers a Japanese Chinatown in Kobe, and in a particular area called Nanking-machi.

Based on an extensive literary review, the first section of this paper clarifies the history of Chinese living in Kobe over the past 140 years.

Next, I analyze how this area was formed not only by foreign residents but a mix of nationals and foreigners. Chinese traders and food related businesses prospered much on Nanking-machi leading up to the 1920s.

The war between Japan and China then caused a decrease in population and thus a decline in the economy. In 1945 this area was almost completely destroyed during an air raid.

Later in the 1980s, Nanking-machi began to prevail again by the Nanking Promotion Association and Kobe city. This association held a Vernal Equinox Day Festival in 1987 to great success and caused Japan to fully recognize Nanking-machi as a strong economic area.

Moving towards the present I recount the progress of Nanking-machi through the observations of a study group, a museum and Chinese school.

Key Words : Japanese Chinatown, Kobe Nanking-machi, Yokohama Chukagai, Ngasaki Shinchi-chukagai, The Kobe Society for the Study of Chinese Overseas, Kobe Overseas Chinese History Museum, Incheon Chinatown, Vernal Equinox Day Festival